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9, Vol. 14, No. 4, 699 - 727

## 이성관계에서 행해지는 데이트 폭력에 관한 연구의 개관

서 경 현<sup>†</sup>

삼육대학교 상담학과

본 개관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수행된 데이트 폭력 관련 연구들의 주제와 결과들을 개괄하여 추후 연구와 중재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여러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 서양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우에도 데이트 폭력은 국민의 정신건강은 물론 신체건강까지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데이트 폭력의 피해 경험을 더 많이 보고한 연구들이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남성이 여성보다 더 심하게 데이트 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데이트 폭력을 제어이론이나 가부장적/비대칭 패러다임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한 Riggs와 O'Leary의 모델이 연구자들에게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아왔다. 이 모델에 기초하여 폭력의 대물림과 폭력에 관한 태도가 많이 탐색되었고, 분노조절, 음주, 정신병적 경향성의 역할도 많이 조명되어 왔다. 데이트 폭력과 관련하여 자해, 집착이나 정서적 의존, 충동성, 급격한 감정변화, 질투심 등을 포괄하는 가해자의 특성이 탐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제부터는 한국에서도 Riggs와 O'Leary의 모델의 기본적인 부분에서 탈피하여 다각적인 실증연구가 수행되었으면 한다. 또한 한국문화에 맞는 데이트 폭력 중재나 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검증 연구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주요어: 데이트 폭력, 구혼기 폭력,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가정폭력, 연인관계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서경현, (139-742)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26-21 삼육대학교 상담학과,  
Tel: 02-3399-1676, E-mail: khsuh@syu.ac.kr

이성 간의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연구는 1981년 Makepeace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다. Makepeace는 이런 폭력을 “courtship violence(구혼기 폭력)”라고 표현하였으나, 근래에 와서는 “dating violence(데이트 폭력)”으로 통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데이트 폭력이나 연애평력 등으로도 번역하여 사용되기도 했지만, 현재 미디어(예: 중앙일보, 2001년 9월 14일자)나 연구들(서경현, 2002; 신혜섭, 2007; 이지연, 오경자, 2007)에서는 데이트 폭력으로 주로 통용되고 있다.

인간은 사춘기에 접어들어 이성에 눈을 뜨게 되면 이상적인 이성상을 마음에 그리고 그것에 걸맞은 상대를 찾기 시작한다. 그 시기가 각기 다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젠가는 자신의 이성상에 가까운 사람을 만나 데이트를 하게 된다. 그런데 다른 성(gender)을 가지고 서로 같지 않은 배경에서 성장한 사람과 항상 의견이 일치할 수는 없을 뿐 더러 상대가 언제나 자신의 기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트를 하면서 대부분의 남녀가 그 관계에서 불일치와 갈등을 경험한다. Lanes와 Gwartney-Gibbs(1985)는 95%의 사람들이 연인관계에서 상대와 의견 불일치나 갈등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 이성관계에서 사랑으로 서로의 약점을 감싸주기도 하지만 상대에게 질투와 분노 혹은 짜증을 표출하기도 하고 심하면 폭력까지 행한다(Henton, Cate, Koval, Lloyd, & Christopher, 1983).

1980년대 이전만 해도 이런 폭력에 관해 사회 일각에서는 물론 학자들도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혼전에 이성관계에서 행해지는 폭력이 생각했던 것보다 강도도 심하고 사회적으로 편만해 있다는 것(Cate, Henton, Koval,

Christopher, & Lloyd, 1982)과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다(Levy, 1990)는 것이 알려지면서 서양에서는 지금까지 약 30여 년간 수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한국에서도 1990년대 말부터 데이트 폭력에 관한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0여 년간 비교적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데이트 폭력과 관련하여 수행된 연구들의 주제와 결과들을 개괄하여 추후연구와 중재의 방향을 모색하려고 한다.

### 데이트 폭력의 실태와 심각성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이성간의 연인관계에서도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미국의 경우 데이트 경험이 있는 사람들 세 명 중에 한 명 정도가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다(Levy, 1990). Straus(1979)가 개발한 갈등척략척도(CTS: Conflict Tactics Scale)로 측정된 미국의 연구들에서는 신체적 데이트 폭력 발생비율이 9%에서 65%까지로 나타났다(Sugarman & Hotaling, 1989). 지난 10년 동안 한국에서 수행된 연구들 중에 신체적 데이트 폭력 가해 비율을 제시하고 있는 17개의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최저 11.6%(김동기, 2009)에서 최고 52.4%(김정란, 김정신, 1999)를 보여 그 양상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귀기 시작하는 때부터 갈등은 존재하기 때문에 십대들의 이성관계에서도 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미국의 경우, 십대의 청소년이 이성을 사귀면서 폭력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처를 입고 병원을 찾은 어린 청소년이 있을 경우 데이트 폭력을 당

한 것이 아닌지 유의해서 관찰해야 한다고 소아과 간호사들을 일깨우고 있다(Herrman, 2009). 일찍이 Foshee 등(1998)의 연구에서는 십대들의 약 8%가 데이트 폭력에 의한 부상 때문에 응급실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간에서 행해지는 폭력이라고 그 강도 면에서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친밀한 관계에서 행해지는 폭력은 폭력의 강도가 점차로 심해져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다. 데이트 폭력을 주제로 한 연구에 포함된 사례(서경현 2001)나 데이트폭력 사이버상담소(라이프코치 데이트폭력 상담소, <http://date.elifecoaching.net/>) 공개상담 게시판에 피해자들이 올린 사연들은 데이트 폭력의 강도가 남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 못지않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미 연방 수사국(FBI, 2000)은 매년 살해당하는 여성들 중에 30% 이상이 남편이나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정도로 여성들은 친밀한 관계에서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의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신체적으로 상처를 입지 않을 정도의 폭력일지라도 심리적으로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들에게서는 그 상황에서 당황스러움은 물론 분노와 공포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이 지속된다(Henton et al., 1983). 데이트 도중 상대방부터 신체적인 공격을 당한 피해자들은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고, 자기에 대한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도 있다(Aguilar & Nightingale, 1994). 또한,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은 피해자 자신에 대한 평가와 남성에 대한 신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남성을 대하는 태도에도 변화가 생겨(Levy, 1990), 피해 여

성의 사회성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친다.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정신건강 차원에서도 심각한 후유증을 경험한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겪는 가장 두드러진 정신건강 문제는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이다(Campbell & Kendall-Tackett, 2004). Sabina와 Straus(2008)가 여러 연구들을 검토해 본 결과, 폭력 피해 여성의 31%에서 84%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고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폭력 피해 여성의 32%에서 74%가 우울 증상을 보였다. 학대받은 여성이 정상적인 여성보다 우울 증에 걸릴 가능성이 9배에서 11.5배나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Gleason, 1993),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이 정신적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

데이트 폭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까지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Flynn, 1983), 데이트 폭력이 직접적으로 가정폭력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데이트 도중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 결혼하여 상대가 자신의 배우자가 되었기 때문에 폭력을 자제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기보다 데이트 폭력을 가해하는 사람들은 결혼신고서를 폭력면허로 생각하여 폭력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이런 사람들은 결혼 전에는 자신과 법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람을 폭행하는 것으로 생각하다가 결혼 후에는 마치 자신의 소유물이라 생각하여 더 마음 편하게 폭행한다. 이런 가정은 몇몇 연구들(Bernard & Bernard, 1983; Lane & Gwartney-Gibbs, 1985)에 의해서도 지지되었다. 실제로 심한 가정폭력으로 각종 사회기관을 이용하는 한국의 아내폭행 피해 여성들이 결혼 전부터 현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왔다고

토로한 것만 보아도 이것이 현실임을 짐작할 수 있다(허남순, 1993). 실제로 2007년 초 신혼여행 후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파경에 이른 한 연예인이 결혼 전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데이트 폭력이 세간에 주목을 받았다.

한국사회에서 부부 간에 행해지는 폭력이나 아동학대로 대변되는 가정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1998년 7월부터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폭력 중에서도 데이트 폭력의 경우는 서양에서와는 달리 한국사회에서는 그 심각성이 잘 알려지지 않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TV의 여러 사회고발 프로그램 등 각종 미디어(예: 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06년 7월 29일자 방송분)에서 데이트 폭력을 다루어 그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 이성관계에서의 신체적 폭력과 심리적 폭력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어디까지 데이트 폭력으로 간주하고 연구해야 하는지에 관한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학자들이 성적인 것을 포함해 신체적 공격성향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반해(Makepeace, 1981; Aizeman & Kelley, 1988; O'Keefe, 1997), 어떤 연구자들(Laner & Thompson, 1982; Marshall & Rose, 1987)은 언어폭력, 정서적 학대, 겁을 주는 행동 등을 일컫는 심리적 폭력까지 데이트 폭력에 포함시켜 연구하였다.

연인과 갈등이 깊어져서 논쟁을 벌이게 되는 수준까지 가는 것을 피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서로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논쟁에 대처하는 것이 이성적이고 지적인 방법이다. 그에 반해 언어를 사용한 정서적 폭력, 문제해결의 대화를 거절하는 비언어적인 공격, 위협적인 행동 등은 상대에게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줄 수 있다. Lloyd, Koval과 Cate(1989)는 이성적 논쟁,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의 차이점과 관련성을 검증한 후, 심리적 폭력도 신체적 폭력과 마찬가지로 한 개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신체적 폭력의 전조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연구주제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이후의 연구들(Stets, 1990; Stets & Henderson, 1991)에서 실제로 언어폭력이 신체적인 폭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지지되었다.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이영숙, 2005)에서도 데이트 폭력이 처음에는 언어폭력으로 시작하여 신체적 폭력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그 동안 데이트 폭력에 대한 연구들은 이성적인 논쟁이나 심리적 폭력은 제외하고 신체적인 폭력만을 변인으로 채택하여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데이트 폭력을 신체적 폭력으로만 한정하여 연구해 온 학자들은 신체적 폭력을 상대방에게 신체적인 해를 가하려는 의도를 가졌거나 그런 의지를 느낄 수 있는 행동만으로 한정한다(Gelles & Straus, 1979). 그렇다고 그런 학자들이 심리적 폭력의 부정적인 영향을 과소평가하여 그들의 연구에서 심리적 폭력 혹은 언어폭력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데이트 폭력에 신체적 폭력만을 채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심리적 폭력까지 포함하면 데이트 폭력의 가해나 피해의 비율이 너무 높아 실증적 분석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도 데이트 폭력을 심리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으로 나누어 분석한 연구들이 꽤 있었는데(강희경, 2007; 김동기, 2009; 김동기, 사공은희, 2007; 김예정, 김득성, 1999a; 김예정, 김득성, 1999b; 김정란, 김경신, 1999; 윤경자, 2007; 장희숙, 조현각, 2001; 정혜정, 2003), 심리적 폭력 가해 비율이 최대 97.9%까지 이르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일반적으로 폭력을 신체적 폭력으로만 국한하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어, 연구결과의 실용화하는데 신체적 폭력에 집중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성 간의 갈등 때문에 상담을 요청해 오는 사람들 중에는 언어폭력이나 심지어 목이나 머리카락을 잡는 것 같은 신체적 공격까지도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미국이나 서구문화와는 달리 한국사회에서는 연구에서 포함시킨 상대의 팔을 비틀거나 밀치는 행위를 폭력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연구를 통해 데이트 폭력의 발생 비율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면 그것을 제대로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Sabina와 Straus(2009)는 데이트 상대로부터의 폭력 피해가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및 성폭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신체적 폭력을 행한다면 다른 심리적 공격도 함께 이루는 것이 다반사이다. 따라서 신체적 폭력은 심리적 폭력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더 심각한 수준을 데이트 폭력으로 간주하여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신체적 폭력으로까지 발전하지 않은

심리적 폭력도 탐구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변인이기에 신체적 폭력에 더해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는 것이다. 특히, 심리적 폭력이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개인적 혹은 환경적 특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 여성이 남성보다 데이트 폭력 가해를 더 많이?

남성이 여성보다 신체적인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남녀 간에 발생하는 폭력은 대부분 남성이 가해자일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믿음이다. 하지만 그 동안 미국에서 수행된 연구들 중에는 데이트 도중 갈등상황에서 폭력을 행하는 빈도에서 성차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Antonio & Hokoda, 2009; Henton et al., 1983; O'Keefe & Treister, 1998; Stets & Henderson, 1991; Symons, Groer, Kepler-Youngblood, & Slater, 1994). 심지어 데이트를 하면서 여성이 더 자주 혹은 많이 신체적 폭력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Foshee, 1996; Plass & Gessner, 1983)은 있었으나, 남성이 여성보다 데이트 폭력을 더 많이 가해한다고 나타난 연구는 거의 없었다. 한국인의 데이트 폭력에 있어서의 성차를 분석한 연구들 중에는 데이트 폭력 가해에 성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김예정, 김득성, 1999; 김유정, 서경현, 2009; 김정란, 김경신, 1999; 신혜섭, 양혜원, 2005)에 비해 여성이 남성보다 데이트 폭력을 더 가해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강희경, 2007; 김동기, 사공은희, 2007; 김보라, 정혜정, 2009; 서경현, 2002; 서경현, 2004; 서경현, 김봉진, 정구철, 김신섭, 2001; 서경현, 이경순, 2002; 서경현, 이영자, 2001; 서경현, 최수동, 김익현, 2007; 이지연,

오경자, 2007; 윤경자, 2007; 장희숙, 조현각, 2001; 정혜정, 2003)이 더 많았다.

일련의 연구들에서 이런 결과들이 도출되었다고 학자들이나 정신건강전문가들은 여성이 주로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이고 남성이 주로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특정한 성별의 소유자로 볼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는 학자나 정신건강전문가가 있기는 하지만 (Hamel, 2009), 데이트 폭력 피해자 사례를 바탕으로 심각한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들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서경현, 2001; Levy, 1990).

Molidor와 Tolman(1998)의 연구에서도 데이트 폭력의 가해 경험에는 성차가 없었지만, 남성중에는 폭력의 가해 동기를 자기방어라고 보고한 비율이 6%인데 비해 여성의 경우는 37%가 자기방어의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여성은 데이트 폭력을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심각한 상처 주는 폭력으로 지각하고 있는 반면에 남성은 데이트 폭력을 위협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도 남성의 폭력이 여성의 폭력보다 강도 면에서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김예정과 김득성(1999)의 연구에서도 데이트 폭력 가해에 성차가 없었으나 신체적 폭력 하위문항별로 분석한 결과, 강도 높은 폭력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많이 가해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의 폭력이 더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영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Hird, 2000)에서도 남자 청소년들의 신체적·성적 폭력이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rcher(2000)의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적인 공격을

약간 더 많이 하지만, 신체적으로 상처를 입힐 정도의 폭력은 남성이 더 많이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처를 입은 피해자의 62%가 여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일련의 연구들은 데이트 폭력의 양적인 부분보다 질적인 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빈도 상으로 여성이 데이트 폭력의 가해를 더 많이 보고하는 것은 척도나 반응성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없더라도 여성의 데이트 폭력은 남성의 폭력에 대한 자기방어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영숙(2005)의 질적 연구에서도 심각한 신체적 공격은 남성이 먼저하고 여성은 자기방어를 위해 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traus와 국제 데이트 폭력 컨소시엄(2004)에서는 지난 25년간 100편 이상의 연구들을 개괄하고 국제적 발생률 통계를 검토한 후에 데이트 폭력 피해에는 성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지만, 한국인에서는 특별히 남성보다 여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 비율이 높게 나타난 연구들이 유독 많았다. 데이트 폭력의 성차가 확실하게 결론 내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의 물리적 힘을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한국 여성의 특징인지를 추후 연구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데이트 폭력의 측정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갈등척략척도(CTS: Conflict Tactics Scales; Straus 1979) 혹은 그 개정판(CTS2: Straus, Hamby, Boney-NcCoy, & Sugarman, 1998)을 사용하여 데이트 폭력은 측정하였다. CTS는 갈등상황에서 이성적으로 해결하

려는 책략을 포함하여 심리적 공격, 신체적 공격 및 성폭력 경험의 빈도를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CTS 개정판은 신체적 공격, 신체 부상, 심리적 공격, 성적강요 차원의 폭력 빈도와 발생률을 함께 측정한다. 폭력의 만연성도 측정하는데, 지난 1년간 특정행동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0으로, 한번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100으로 코딩하여 이를 합산하면 백분율, 즉 발생률이 된다. 심리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 모두 가벼운 폭력과 심한 폭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심한 부상은 상대방과 싸우다 맞아서 실신한 적이 있는지와 아파서 병원에 간 적이 있는지를 평가한다. 성폭력도 협박 수준과 폭행 수준으로 나누어 측정한다. 데이트 폭력으로 심리적 폭력에도 초점을 맞추는 연구자들은 CTS가 심리적 폭력을 포함하고 있지만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여 Shepard와 Campbel(1992)의 학대행동설문지(ABI: Abusive Behavior Inventory)를 사용하기도 했다.

CTS 개정판에서 가벼운 정도의 신체적 공격과 심한 폭력 혹은 신체적 부상 정도를 나누어 측정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폭력이 상대방에게 신체적 상처를 입힐 정도의 심한 정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심리적 폭력을 논의하면서 설명하였듯이 심리적 폭력은 물론 가벼운 신체적 공격도 심각한 폭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가벼운 신체적 공격과 심한 폭행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가벼운 신체적 공격을 자주하는 것이 CTS 총점을 높여 심각한 데이트 폭력으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폭력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설문지에 응답한 결과는 사회적 요망도(social desirability)의 영향

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이유로 데이트 폭력 가해의 성차가 나타난 결과는 그 신빙성을 의심받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적 요망도의 영향을 통제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경우 더욱 그렇다. 청소년데이트관계척도(ADRI: Adolescent Dating Relationships Inventory)와 같은 척도가 있기는 하지만(Wolfe et al., 2001),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트 폭력을 측정하는 데에는 사회적 요망도 외에도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Theriot, 2008). 청소년들의 경우 신체적·인지적·정서적 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성인의 경우 이상행동으로 여겨질 것들이 청소년기에서는 정상적인 것일 수 있다. 청소년기부터 성인기까지 이성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성인은 물론 청소년의 신체적 공격 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도 높은 척도가 개발되어야 한다.

데이트 폭력과 관련하여 서양에서 수행된 연구들에서는 주로 면접을 통하여 데이트 폭력을 조사한 경우가 많다. 본 연구자도 한국 대학생과 미국 대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필자의 경험상 미국 대학생들과 한국 대학생들은 이런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이나 태도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면접을 통하여 이성관계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경험의 정보를 얻는데 더 어려움이 있었다. 서양 사람들과는 달리 한국 사람들은 이전에 이성관계에서 겪은 부정적인 경험이 외부에 노출되면 이후의 이성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필자는 면접

방식보다는 설문지를 통한 방법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대상자의 절반은 익명으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절반은 면접으로 설문에 응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한 연구(서경현, 2004)에서도 두 가지 자료수집 방식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이성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설명하는 이론들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적 모델은 Riggs와 O'Leary(1989)가 제안한 모델이다. 이 모델의 중심에는 사회학습이론이 있다. Bandura(1977)의 사회학습이론에서는 부모로부터 폭력 피해를 당했거나 부모간에 행해지는 폭력을 목격한 아동은 모방학습으로 인해 성장하여 여러 인간관계에서 폭력 행동을 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Riggs와 O'Leary의 모델은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다른 유형의 폭력들과 그에 따른 문제의 구조에 관한 연구들에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데이트 폭력에 관심을 가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Riggs와 O'Leary의 모델이 지지받아 왔다.

Riggs와 O'Leary(1989)의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일반적 변인들은 두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소인(predisposing factors)라고 할 수 있는 전후관계성 변인(contextual variables)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상황적 예측요인(situational predictors)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적 변인(situational variables)이다. 전후관계성 변인들은 "상대방에게 과격하게 행동할지"를 예측해 주는 조금 더 기본적인 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친밀

한 관계에서의 호전성, 부모의 자녀학대,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 과거의 폭력 가해 경험, 성격, 자극에 대한 민감성 등이 있다. 상황적 변인들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공격성이 나타날까"를 예언해 주는 좀 더 직접적인 변인인데, 스트레스, 음주, 상대의 공격적 행동, 갈등의 존재, 관계에 대한 만족, 폭력에 따른 이득에 대한 기대 등이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수행된 연구들 중에 대부분이 이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변인들을 주제로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모델을 근거로 가장 빈번하게 연구되어 온 변인들을 별도로 개괄할 것이다.

데이트 폭력을 설명하는 또 다른 이론으로는 제어이론(Control Theory)이 있다. 제어이론은 폭력행동과 같은 일탈행동이 학습되었다기보다 타고난 성향이라는 것에 기초한다(Hirschi, 1969). Friedman과 Rosenbaum(1988)도 일탈적인 기질은 유전된 인간의 본성이고 모든 사람에게 이런 본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어이론에서는 세상에는 한 가지 도덕적 체제만이 존재한다고 보고 인습적 도덕체제를 벗어난 행동을 일탈행동으로 간주한다(Reiss, 1951). 제어이론에 따르면 인습적 행동에서 벗어난 일탈행동을 방지하는 것은 사회결속을 통해서 가능하다. Hirschi는 사회결속을 애착(attachment), 신념(belief), 몰입(commitment), 연루(involverment) 네 가지 요소로 나누어 설명한다. 예를 들어, 이 이론에서는 개인이 정상적인 가정에서 사회적 유대감을 강하게 느끼면 문제가 발생하지 하지 않지만, 폭력적인 가정환경에서는 자녀가 부모와 애착관계를 제대로 형성할 수 없고 신념이나 몰입과 같이 유대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발달시키지 못해 데이트 폭력을 행할



가능성이 많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데이트 폭력을 설명하는 제어이론은 사회학습이론보다 연구자들에게서 크게 호응을 얻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연인과 관계하는 방식들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서경현, 안귀여루, 2007; 서경현 등, 2007)이 한국에서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런 연구들에서는 연인과 관계하는 방식이 부모의 양육방식과 관련이 있고, 데이트 폭력 피해가 관계에 몰입하는 수준과 관련이 있어 Hirschi의 사회결속에 대한 개념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앞으로 한국에서도 제어이론을 기반으로 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부부 간의 폭력이나 데이트 폭력 같이 남녀 사이에 발생하는 폭력이 가부장적 문화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남성이 주도적이고 우세하며 여성은 순종적이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관한 신념이 데이트 폭력 피해와 상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Lichte & McCloskey, 2004). 이런 신념과 관련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조망은 가부장/비대칭 패러다임(patriarchal/asymmetry paradigm)이다. 가부장/비대칭 패러다임(Johnson & Leone, 2005)에서는 상대에게 군림하거나 상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심각한 가정폭력 혹은 데이트 폭력을 조장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입장에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다(Hamel, 2009). 하지만, 앞서 논의했던 것처럼 심각한 데이트 폭력 피해는 남성이 아닌 여성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부장적인 문화와 비대칭적인 인간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는 가부장적인 요소 혹은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아직도 잔존해 있기 때문에 가부장/비대칭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데이트 폭력을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

### 폭력의 대물림

폭력이 대물림 되는 것일까? 앞서 제어이론을 설명하면서도 언급하였듯이 Friedman과 Rosenbaum(1988)도 폭력적 일탈행동은 유전되는 기질적 차원이 강하다고 보고 학습보다 유전적 대물림을 강조하였고, Riggs와 O'Leary(1989)는 사회학습모델을 바탕으로 소인의 대표적 변인으로 가정폭력의 경험이 학습되어 대물림이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부모의 폭력과 자녀의 가정폭력 혹은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에서 부모의 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것이 주요 변인으로 부각된 것은 사회학습모델을 더 지지할 수 있지만 유전적 대물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유전이던 학습이던 간에 본고에서는 폭력이 대물림되어 데이트 도중에 표출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부모간에서 행해지는 가정폭력을 목격한 사람이나 아동학대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가정폭력을 행할 가능성이 더 크고(Campbell & Humphrey, 1993), 청소년기에 비행이나 문제행동을 더 하며(조미숙, 2003), 학교 폭력에도 더 연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정옥, 박경규, 2002). 부모와 관련된 경험에는 정서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모방학습이 더 잘 이루어진다고 Bandura(1977)는 설명하고 있다. 그런 모방학습은 단지 행동 뿐 아니라 그 행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각본까지 관찰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의 가정폭력 행동을 관찰할 때 그 행동 자체뿐 아니라 그 행동으로 인해 얻어지는 이득,

폭력에 대한 허용적 분위기, 다양한 갈등대처행동에 대한 신념이나 행동도 함께 학습될 수 있다.

그러나 폭력의 세대 간 전이(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부모 사이에 행해지는 폭력을 목격하는 것이 데이트 폭력을 일으킬 가능성을 높인다는 결과를 얻은 연구들이 있었는가 하면(O'Keefe, Brockop, & Chew, 1986; DeMaris, 1987; Riggs, O'Leary, & Breslin 1990; Smith & Williams, 1992; Foo & Margolin, 1995; Foshee, Bauman, & Linder, 1999), 어떤 연구들에서는 이 둘 사이에 연관성을 찾아내는데 실패하였다(Comins, 1984; Stets & Pirog-Good, 1987; Follette & Alexander, 1992; Riggs & O'Leary, 1996).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폭력이나 신체적 처벌에 대한 경험, 즉 자녀학대에 대한 피해와 데이트 폭력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가 있었지만(Sigelman et al., 1984; Smith & Williams, 1992), 그런 관계가 발견되지 않은 연구들도 있었다(O'Keefe, et al., 1986; Foo & Margolin, 199; Riggs & O'Leary, 1996; O'Keefe, 1997). 한국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도 다양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어떤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경험과 부모간 폭력의 목격이 데이트 폭력과 관계가 있었는가 하면(신혜섭, 양혜원, 2005; 안귀여루, 2002), 부모간 폭력의 목격이 아닌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경험만이 데이트 폭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기도 했으며(정혜정, 2003), 그런 관계가 발견되지 않은 연구도 있었다(신혜섭, 2007a). 아버지는 아니고 어머니로부터 받은 학대만이 데이트 폭력과 관계가 있었던 연구들도 있었다(김예정, 김득성, 1999; 손혜진,

전귀연, 2003).

이렇게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가정 폭력 경험과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를 조절하거나 매개하는 변인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가정 하에 수행된 연구들에서도 일관된 결과를 얻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부모 간 폭력에 대한 노출과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가 남성에게서만 강하게 나타난 경우가 많았고(DeMaris, 1987; Tontodonato & Crew, 1992; Foo & Margolin, 1995; O'Keefe, 1997), 그 반대인 경우도 있었다(Sigelman, Berry, & Wiles, 1984). 또한, 자녀 학대와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도 남성에게서만 나타난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Marshall & Rose, 1988; Burke, Stets, & Pirog-Good, 1988), 여성에게서만 나타난 경우도 있다(Tontodonato & Crew, 1992). 한편, 부모 중 누가 누구에서 폭력을 가해하는 것을 목격했는지, 즉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가해하는 폭력 아니면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가해하는 폭력을 목격했는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였으며, 그것에도 성차가 있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행한 폭력의 목격이 남성의 데이트 폭력만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었으나(서경현 등 2001), 반대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행하는 폭력 목격만이 여성의 데이트 폭력(서경현, 이영자, 2001) 혹은 남성의 데이트 폭력(서경현 등, 2007)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었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에 대한 가정 폭력의 영향력에 성차가 있는 것은 확인되었으나 그것이 일관적이지 않았기에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이지연과 오경자(2007)의 연구에서는 폭력에 대한 태도와 분노조절이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과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 간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

변인으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최근 김동기(2009)의 연구에서는 폭력에 대한 태도가 아동 학대 경험과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의 관계는 매개하지 않으나, 부모간의 폭력과 데이트 폭력 가해와의 관계는 매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희경(2007)의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에 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데이트 폭력과 상관이 있었다. 가정폭력의 경험은 폭력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 혹은 신념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폭력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연구 결과는 Bandura(1977)의 설명처럼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학습이 행동 뿐 아니라 폭력에 대한 태도와 신념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지만, 인지적 학습이 행동에 선행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이런 결과는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고 중재하기 위해서 행동수정은 물론 인지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 데이트 폭력에 대한 태도

앞서 논의한 것처럼 폭력에 대한 태도가 가정 폭력 경험과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가 있었지만, 본래 Riggs와 O'Leary(1989)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가 데이트 폭력의 소인이 되는 중요한 변인으로 꼽았다. 여러 연구들에서 데이트를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이 데이트 폭력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그들 중 남성이 여성보다 데이트 폭력에 대해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Henton, et al. 1983; Arias & Johnson, 1989). 한국에서 수행된 대부분의 연구에서도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는 데이트

트 폭력의 가해 및 피해와 상관이 있었다(김정란, 김경신, 1999; 서경현 등, 2001; 손혜진, 전귀연, 2003; 신혜섭, 양혜원, 2005; 장희숙, 조현각, 2001).

그러나 이런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 일련의 연구들에서 나타났다(Stets & Pirog-Good, 1987; O'Keefe, 1998). 이런 연구에서는 그 관계가 남성에게만 해당되고 여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정혜정(2003)의 연구에서도 남성의 경우만 부모 간 폭력의 목격과 데이트 폭력 가해 간에서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가 매개변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런 연구들은 데이트 폭력에 대한 태도가 남성에게서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하지만, 몇몇의 연구에서는 조금 더 복잡한 결과를 얻었다.

그 예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O'Keefe(1997)의 연구에서는 남성의 경우에는 남성이 여성에게 행하는 폭력이 정당하다고 생각되면 데이트 도중에 폭력을 가해할 가능성이 높고, 여성의 경우는 여성이 남성에게 행하는 폭력은 정당하지만 남성이 여성에 행하는 폭력은 정당치 않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 데이트 폭력을 가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여성의 논리는 여성의 폭력의 강도가 약하고 자기 방어적이며 대부분 남성이 여성보다 물리적인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다. 또 다른 연구(Bookwala, Frieze, Smith, & Ryan, 1992)에서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남성들의 데이트 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가 데이트 폭력의 중요한 예언변인이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여성들은 연구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데이트 폭력에 대한 부정

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연애 도중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데이트 폭력을 측정하는 도구로 성적반대신념척도(Adversarial Sexual Beliefs Scale)를 사용한 것과 여성들이 남성 우월적인 남녀관계를 적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 데이트 폭력을 일으킬 가능성을 높인 것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여성의 폭력이 자기방어라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데이트 폭력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여성은 남성의 데이트 폭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준비가 된 여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폭력에 대한 태도와 데이트 폭력 가해 혹은 피해와의 관계가 종단연구가 아닌 단면적인 횡단연구로만 검증되었다면, 폭력에 대한 태도가 데이트 폭력 가해나 피해에 영향을 주었다고만 결론내릴 수는 없다. 역으로 데이트 폭력 가해나 피해가 폭력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능성은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인지부조화 이론(Festinger, 1957)에서는 자신의 행동과 신념이 부조화를 이룰 경우 심리적 불편함을 덜기 위해 그 부조화를 없애려고 하는데, 자신이 이미 행동을 해버렸으면 자신의 가진 신념 혹은 태도를 바꾸게 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 이론을 데이트 폭력에 적용하면 자신이 이미 폭력을 가해했거나 폭력을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것에 대한 신념을 바꾸어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없애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을 1년 반 동안 추적한 종단적인 연구(Foshee, Linder, MacDougall, & Bengdiwala, 2001)에서도 데이트 폭력의 경험이 없던 청소년들 중에 폭력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보였던 청소년이 데이트 도중에 폭력성을 더 보이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가 데이트 폭력 가해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이런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있어야 하겠다.

### 분노조절과 데이트 폭력

데이트 도중 갈등상황에서 분노의 감정이 조절이 되지 않아 분노 행동의 한 형태로 폭력이 나타날 수 있다. Novaco(2007)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대인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증명하였다. 분노가 청소년의 폭력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들을 통해 보고되었고(Cornell, Peterson, & Richards, 1999; Myers & Monaco, 2000), 통제되지 않은 분노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특히 데이트 폭력 과도 관계가 있다는 것도 일련의 연구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김유정, 서경현, 2009; 서경현, 2002; 서경현, 이경순, 2002; 이지연, 오경자, 2007; Dye & Eckhardt, 2000; Follingstad, Bradley, Laughlin, & Burke, 1999; Silver, Field, Sanders, & Diego, 2000).

Follingstad 등(1999)의 연구에서는 데이트 상대를 조정하고 싶어 하고 분노 표현을 억제하지 못하는 대학생이 데이트 폭력을 더 자주 행한다는 결과를 얻었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대학생이 특성 분노와 분노 표출 수준이 높고 분노 통제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Dye & Eckhardt, 2000). 한편, Silver 등(2000)은 분노 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분노 수준이 낮은 청소년보다 가족과의 친밀감은 덜 느끼는데 반해

동성친구뿐 만 아니라 이성친구들을 많이 사귀며, 데이트도 더 자주 하고 그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폭력을 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아냈다. 한국 고등학생(서경현, 2002)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그 설명력이 크지 않았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서경현, 이경순, 2002)에서는 특성 분노와 분노 표출이 데이트 폭력 가해와 관계가 있었다. 또한 여러 연구들(김유정, 서경현, 2009; 서경현, 2008; 서경현, 이경순, 2002)에서 분노조절을 못하는 사람이 데이트 폭력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정과 서경현(2009)의 연구에서는 분노의 표출이나 간접적인 분노표현이 데이트 폭력의 피해와 상관이 있었는데, 이런 결과는 부적절한 분노표현이 데이트 상대의 공격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데이트 도중 갈등 상황에서 분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여 충동적으로 폭력이 행해질 수 있다. 몇몇의 연구들(안귀여루, 2002; Lundeberg, Stith, Penn, & Ward, 2004)에서는 그런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데이트 상황에서 폭력의 가해로 이어지는 분노조절의 문제는 앞서 논의한 데이트 폭력의 위험요인들의 영향에 의한 것일 수 있다. 이지연과 오경자(2007)의 연구에서는 폭력에 대한 태도는 물론 분노조절도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과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 간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부모간의 폭력을 경험하였을 경우에 데이트 상황에서 갈등이 생기면 분노 조절을 잘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김유정과 서경현(2009)의 연구에서도 데이트 폭력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상대를 지나치게 의심하는 경향이 있었고 분노

의 행동 수준이나 각성수준이 높았는데, 이는 폭력의 노출 경험이 데이트를 하면서 상대의 반응에 너무 민감하게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런 차원에서 분노조절은 Riggs와 O'Leary(1989)의 모델에서 전후관계성 변인 중에 자극에 대한 민감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충동성은 행동적인 면이 강한데 반해, 이 두 연구에서는 분노조절에 과거의 폭력 경험이나 상대에 대한 의심과 같은 인지적인 면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행동으로 표출되는 데이트 폭력에는 인지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 음주와 데이트 폭력

음주는 Riggs와 O'Leary(1989)의 모델에서 상황적 변인 중에 하나이다. 이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술을 마신 상황이 데이트 상대에게 공격성을 표출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음주는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폭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arrington, 1998). 음주가 부부간의 폭력(Hamilton & Collins, 1981)이나 아동학대(MacMurray, 1979)와 같이 친밀한 관계에서도 폭력을 유발한다. 만취한 상태에서 배우자나 이성친구에게 폭행할 수 있고(Hoffman, Demo, & Edwards, 1994),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증가시킨다(Cunradi, 2009).

알코올이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행동억제 능력을 약하게 하고 사회적 단서를 해석하는 능력을 손상시키기 때문에(Abby, Ross, & McDuffie, 1995), 개인을 폭력에 연루되게 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런 생리적 효과로 음주와 폭력과의 관

계를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Miczek 등 (1994)을 포함한 여러 연구자들은 대인관계에서의 폭력에 있어서의 알코올의 생물학적 효과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고 주장한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음주와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도 일관적이지 않았다.

어떤 연구들(Cate, Henton, Koval, Christopher, & Lloyd, 1982; Foo & Margolin, 1995; O'Keeffe, 1997)에서는 음주와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 간의 관계가 발견되었으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음주와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 간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서경현 등, 2001; 서경현, 이영자, 2001; Burcky, Reuterman, & Kopsky, 1988; O'Keeffe, 1998). 또한 그런 관계가 남성에게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Coleman & Straus, 1983; Ray & Gold, 1996). 이렇게 일관적이지 않은 연구 결과가 도출되는 이유는 일반적인 음주 양상이나 단지 음주하는 여부를 변인으로 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데이트 폭력이 일반적인 음주 양상과는 관계가 없고 갈등 상황 그 시점에서의 음주가 데이트 폭력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Stets & Henderson, 1991; Tontodonato & Crew, 1992). 다시 말해, 관계에서의 갈등과 음주가 조합되었을 때 데이트 폭력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다. 문제 음주 수준과 음주동기를 주제로 한 서경현의 연구(2003)에서는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대학생이 대처동기를 가지고 술을 먹는 경향이 있었고 문제음주 성향이 강했다. 한편 현재 음주습관이 아닌 어느 정도의 나이에서 음주를 시작했는지가 데이트 폭력 경험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었다(Ramisetty-Mikler, Goebert, Nishimura, & Caetano, 2006). 이런 연구들을 중

합해 볼 때 음주가 개인의 삶에 어느 정도 깊이 관여하고 있을 때만이 이성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듯하다.

데이트 폭력과 음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가 일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런 관계가 사회적으로 학습되는 것이기 때문일 수 있다 (McDonald, 1994). 앞서 언급한 대로 사회학습이론을 근거로 데이트 폭력을 설명하는 Riggs와 O'Leary(1989)의 모델에서는 음주를 상황적 변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학습에는 사회적 환경 혹은 문화가 작용한다. 어떤 사회에서는 음주가 반사회적 행동을 해도 되는 기회가 된다고 한다(Gelles, 1974). 그런 사회에서 남성들은 음주에 따른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술에 취해 있을 때 폭력을 행한다. 일례로 일부 아프리카 문화권에서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남성들이 일부러 음주를 하여 그 상태를 여자친구나 아내를 구타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Abrahams, Jewkes, & Laubscher, 1999). 한국은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2008년 말 한국에서도 9세 아동을 성폭행하고 장기의 80%를 영구적으로 불구로 만든 성폭력범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감형되었다(중앙일보, 2009년 9월 30일자). “마누라와 북어는 이틀에 한 번 씹은 패야 한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한국사회에도 가부장적 전통이 있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을 사회가 허용한다는 것은 은연중에 학습하며 성장했을 수도 있다.

일부 기독교 문화권 혹은 이슬람 문화권보다 한국 사회가 음주에 의한 역기능적인 행동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편이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음주와 관련하여 더 심층적이고 포괄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서양(Levy, 1990)은 물론 한국(서경현, 2001)에서도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경험이 음주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태도 등과 같이 데이트 폭력의 소인이 되는 변인의 영향력이 여성에게서 덜 했던 것에 비해 서경현의 연구(2003)에서는 데이트 폭력 가해와 음주문제 간의 관계는 여성에게서 더 확실하게 나타난 것을 감안할 때 데이트 폭력과 관련하여 여성의 음주를 조명해 볼 필요도 있다.

#### 데이트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기타 특성

지금까지는 데이트 폭력의 가해나 피해를 예언할 수 있는 요인들을 고찰하였는데, 그 외에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다른 특징들이 없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데이트 폭력과 가정 폭력에는 여러 가지로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Flynn, 1983; Lane & Gwartney-Gibbs, 1985), 배우자나 이성친구에게 심한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다른 대인관계에서는 폭력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은 점에 있어서도 비슷하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람들은 배우자나 이성친구에게만 폭력적인 것일까?

배우자나 이성친구는 개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루는데 있어서 매우 결정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진화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여러 행동을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어 종족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석한다. 따라서 종족을 유지하는 생식(生殖)과 관련된 공격성은 본능적이라

고 진화심리학자들은 주장한다(Campbell, 1995). 이런 공격성 혹은 폭력성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관련이 있다(Albert, Jonik, & Walsh, 1992). 그런 이유로 배우자나 이성친구에 대한 폭력이 과격할 것일 수 있다. 데이트 폭력의 피해를 예방을 위해 개설된 거의 모든 미국의 웹사이트들이 집착과 소유욕을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특성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한 데이트 폭력 상담소(<http://date.elife coaching.net/>)의 공개상담 게시판에 글을 올린 피해자가 묘사하는 가해자들의 주요 특징이 바로 그것이다. 집착이나 소유욕과 같은 특성도 생식과 관련된 본능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집착을 포함해 폭력이나 자해, 정서적 의존, 충동성, 예측하기 힘든 감정의 변화, 질투심과 지나친 의심 등이 데이트 폭력 예방 웹사이트나 피해자가 묘사하는 내용으로 이런 특성은 경계선 성격장애나 편집형 성격장애 증상과도 유사하다. 심각한 데이트 폭력 가해자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집착이나 의심과 같은 특성들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이와 같은 변인들을 분석한 연구가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자아존중감과 같은 자기개념과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를 검증연구들도 있었다. 자아존중감이 데이트 폭력에 대한 완충작용을 하거나(O'Keefe, 1998), 자아탄력적인 사람이 데이트 폭력의 피해를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서경현 등(2001)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데이트 폭력의 가해나 피해와 상관이 없었다. 그러나 이런 관계를 심층적으로 다룬 연구들이 많지 않은 실정에서 결론내리기는 아직 이르

다(Few & Rosen, 2005). 예를 들어, O'Keefe (1998)의 연구에서처럼 자아존중감과 데이트 폭력이 상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아존중감이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인과의 방향을 추론하기는 어렵다. 데이트 폭력 경험이 피해자 개인의 자기개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몇몇의 연구에서 개인의 성격 중에 정신병적 경향성이 데이트 폭력 가해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정신병적 경향성이 이성친구나 배우자에 대한 폭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그 관계가 남성에게만 해당되었다(서경현, 이경순, 2002; Gavazzi, Julian, & McKenry, 1996; Malamuth, 1986; Murphy, Coleman, & Haynes, 1986). 이런 관계가 발견되지 않은 연구도 있었지만(Farnham, James, & Cantrell, 2000), 정신병적 경향성이 데이트 폭력 가해를 예언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한다. 정신병적 경향성이 공격성, 정서적 냉담, 동정심 부족, 충동성 및 자기중심적 특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이현수, 1997), 이런 하위 특성과 관련해서도 탐구할 필요가 있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 중에는 순수하게 피해만 입은 사람(victim only)도 있는가 하면, 피해를 유발하는 신체적 공격을 먼저 한 공격적 피해자(aggressive victim)도 있다.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친구들부터의 폭행을 당한 아동이나 청소년 중에 공격적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더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종호, Essex, 2002; Felix & McMahon, 2006; Schwartz, 2000). 게다가 데이트 폭력 공격적 피해자의 폭력 피해는 그 정당성

을 인정받기 어렵다(Witte, Schroeder, & Lohr, 2006). 국내에서도 데이트 폭력의 공격적 피해자에 관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한 연구(서경현, 안귀여루, 2007)에서는 공격적 피해자가 데이트 폭력 미경험자보다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많았으며, 데이트 폭력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또 다른 한 연구(서경현, 2008)에서는 공격적 피해자가 정신병적 경향성과 중독성도 강했으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문제를 잊어버리고 체념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타인과 긍정적으로 비교하며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 두 연구에서 검증된 데이트 폭력 공격적 피해자의 이런 특성이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전통적인 특성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 집단에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 폭력 피해자가 왜 관계를 지속하는가?

연인관계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상대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지속하는 것에 관하여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다. 심지어 심한 폭력을 만성적으로 당한 여성들 중에도 상대의 위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자발적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 Lloyd와 Emery(2000)는 친밀한 관계에서 폭행을 당하고도 그 관계를 지속하는 여성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런 여성은 자신이 학대받고 있다는 것을 애써 부인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며, 그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고, 도움을 받을 있는 외부적 자원에 그 사실을 숨기며, 자신이 상대를 구제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그 관계를 유



지하여 만성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개인의 이런 취약성은 Few와 Rosen(2005)의 질적 연구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중독될 수도 있다고 한다(Halpern, 1994). Halpern(1994)은 많은 인간관계 중에서도 이성관계에서 나타나는 중독성이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중독된 사랑(addicted love)”이 개인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음을 강조했다. Nicarity(1991)는 인간관계에 중독된 사람의 특성을 “생존을 위해 상대방이 꼭 필요하다는 믿음, 상대방과의 만족스런 경험의 감소, 상대방을 제어하려는 노력과 관련된 낮은 자아존중감, 상대방에게 너무 조심스러움, 불만족스러운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것, 인간관계에 대한 강박적 사고, 사랑을 힘든 세상의 피신처로 인식하는 것” 등으로 요약하였다. 중독성이 강한 여성은 사회관계가 열악하고, 스트레스 및 각종 정신질환에 취약하며, 이성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수용하고 폭력의 피해를 당해도 그 관계를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Pearson, 1991). 중독성과 데이트 폭력과의 관계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증명된 연구들이 있었는데(서경현, 이경순, 2002; Charkow & Nelson, 2000; Henton et al., 1983; Nicarty, 1991; Pearson, 1991), Pearson(1991)은 관계에 중독되는 여성은 폭력과 학대가 난무하는 역기능적인 집안에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 때문에 아주 가까운 대인관계에서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관계에 중독되는 여성은 상대방이 구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남성에게 호감을 살 수 있으며, 문제의 남성이 이런

여성에게 쉽게 학대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데이트 폭력의 피해를 당하고 피해자가 그 관계를 지속하게 되는 것이나 그 관계에서 가해자가 폭력 행동을 지속하게 되는 것은 데이트 폭력에 대한 귀인과도 관계가 있을 수 있다(Witte, Schroeder, & Lohr, 2006).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는 피해자가 데이트 폭력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변명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강요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데이트 폭력 발생의 전후맥락을 따져 보면서 가해자 남성이 다른 사회적 관계에서 폭력적이지 않으며 평소 자신에게 친절하고 애뜻하게 대하였던 것을 생각하고 혹시 자신에게 잘못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폭력이 만성화될 때까지 그 관계가 지속될 수도 있는 것이다.

폭력적 관계를 떠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것은 투자모델로도 설명된다(Rusbult & Martz, 1995). 이 모델에서는 데이트 관계에 심리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얼마나 투자했는지, 그 관계가 자신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을 주고 있는지, 그런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 그리고 인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그 관계에 연결되어 의존하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관계를 떠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가 결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폭력이 있어도 애인이 없는 삶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면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도 그 관계를 떠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이 관계를 위해 투자한 것이 많은데 이 관계를 떠나 다른 연인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대안을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것을 위해 다시 투자할 것이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 더욱 그렇다. 의식적으로 그것을 투자라고 지칭하지 않겠지만, 이런 피해자에게는 폭행을

당한 것까지도 그 관계에 대한 투자가 될 수 있다.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피해자가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이 투자모델의 유용성은 일련의 국내외 연구들에서도 검증되었다(이정은, 현명호, 유제민, 2007; Katz, Kuffel, & Brown, 2006). 이정은 등(2007)은 이 투자모델에 피해자의 이타적 망상을 포함한 구조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이타적 망상은 자신이 참고 견디면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노력과 사랑으로 상대의 문제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이런 피해자는 자신마저 상대를 떠나면 상대의 인생이 더 망가질 것이라는 걱정까지 한다. 이런 결과는 폭력적 관계를 떠나지 못하는 피해자의 경우 자신이 상대방을 구제해야 하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Lloyd와 Emery(2000)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런 이타적 망상을 감안한다면 이런 피해자의 경우 상대를 용서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데이트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방식에 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 데이트 폭력 중재 전략의 모색

데이트 폭력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행동의 경우 사회학습이론이나 그 소인이 어린 시절부터 학습된다고 보고 있으며, 제어이론에서는 그 소질을 가지고 태어나 성장하면서 발달하게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을 중재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예방적 개입을 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학교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데이트 폭력의 예방적 중재에 관한 연구들이 있

었다. 여러 연구들을 바탕으로 Theriot(2008)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선 데이트 폭력을 가해했거나 피해를 당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3차 예방적 중재의 방법이 있다. 이런 중재는 데이트 폭력의 재발방지와 재화에 집중하지만,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경우 처벌과 사회적 낙인효과를 두려워하여 자신의 문제를 노출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청소년 폭력의 3차 예방은 비용대비 효과가 적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특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위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데이트 폭력 가해 혹은 피해 위험의 특성을 가진 청소년들을 미리 가려내어 중재하는 2차 예방도 쉽지 않게 한다. 만약 폭력 가해 혹은 피해 성향에 대한 측정에 사회적 요망도가 작용한다면 타당도가 낮아지고, 폭력에 연루될 가능성이 없는 학생에게까지 중재하는 오류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청소년에게 알리고, 데이트 도중에 생길 수 있는 갈등을 비폭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상대의 폭력에 대처하는 방식을 교육하는 1차 예방적 중재가 효과가 있다. 1차 예방적 중재가 비용대비 효과 면에서도 뛰어나다는 것이 이미 검증되었다(Fields & McNamara, 2003).

미국의 학교에서는 데이트 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효과가 검증된 것들이 몇몇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10회기 동안 실시되는 “안전한 데이트 프로그램(Safe Date program)”이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역할 연기와 데이트 폭력 예방 포스터 작성 등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그 효과가 연구로도

검증되었다(Foshee et al., 1998). 그 외에도 데이트 폭력의 실상과 데이트 폭력에 법적인 부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단기간에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있다(Jaycox et al., 2006). 데이트 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상대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변화를 주고, 데이트 폭력을 정당화하는 신념을 논박하며, 긍정적 관계를 맺는 사회성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다(Theriot, 2008). 더 나아가 교사, 부모, 정신건강전문가 등이 협력하여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데이트 폭력을 조장할 수 있는 상황적 변인들을 조절하도록 교육하거나 상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연인과 갈등이 생겼을 때 음주를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청소년 데이트 폭력에 대한 미국의 전국적 조사(Roberts, Auinger, & Klein, 2006)에서는 성관계를 갖거나 임신을 하는 것이 데이트 폭력 발생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때문에 혼전 성관계나 임신이 데이트 상대방으로부터 폭력의 위협에 노출시킨다는 것을 강조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폭력 경험과 같이 데이트 폭력의 소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사회지지(김동기, 사공은희, 2007)나 분노조절(이지연, 오경자, 2007)을 통해 중재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폭력에 노출되었던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인지행동적 중재가 필요하다. 특히 앞서 논의했던 것처럼 데이트 폭력에는 행동적인 측면 외에도 인지적인 차원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지적 중재가 우선되어야 한다.

최근 한 연구(Stein, Tran, & Fisher, 2009)에서

는 데이트 폭력으로부터의 재활회복도 또 다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데이트 폭력 경험자의 데이트 폭력에 대한 예기 신념을 중재해야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 경험이 있는 여성이 이성관계에서 데이트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이런 여성들은 자신이 연루되어 있는 연인관계보다 다른 사람들의 연인관계에서 더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 이것은 자기높이기 귀인편과(self-serving attribution bias: Miller & Ross, 1975)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자신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거나 비정상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존심 손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싶은 것이다. 이런 비합리적 생각은 현재의 연인관계에서도 부적절한 대처를 하여 폭력의 피해를 키울 수 있고, 더 나아가 미래의 연인관계나 대인관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Hamel(2009)은 데이트 폭력을 포함한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에 대한 조망과 치료전략으로 탈 가부장/비대칭 패러다임(post-patriarchal/asymmetry paradigm)이 적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탈 가부장/비대칭 패러다임(Johnson & Leone, 2005)에서는 서로 간에 갈등 때문에 생기는 보통 사람들의 상황적인 폭력은 비교적 심각하지 않고, 상대에게 군림하고자 하는 폭력이 강도 높고 심각한 폭력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Hamel은 연구에서 대부분의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상대를 조정하려는 수준이 균등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런 논리로 그는 신체적 폭력 피해의 30%가량은 남성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성-포괄적 모델(gender-inclusive model)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이성관계에서의 폭력은 성별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사의 문제이며 이성적 판단의 문제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Hamel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란 관계하는 방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중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을 가장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성친구로부터 폭행당한 것이 부끄러워 그 일을 숨기거나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런 소극적 대처는 데이트 폭력과 관련하여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구하는데도 소극적이게 만들어(Shannon, Logan, Cole, & Medley, 2006), 피해를 키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을 중재하려는 정신건강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을 찾는 방식에 있어서 문화적 차원에서 차이가 있다(Theriot, 2008). 특히 한국의 경우 이성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타인에게 알리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감안하여 접근할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이버나 전화를 이용한 원격 중재가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 맺음말

약 30여 년 동안 연구들이 축적된 미국만큼은 아니어도 한국에서도 지난 10년 동안 데이트 폭력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사회적으로도 그 심각성이 점차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약

10년 간 한국에서 수행된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 서양에서와 마찬가지로 세 명 중 한 명 정도는 데이트 도중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었다. 가부장적인 전통을 가진 한국의 경우 친밀한 관계에서 여성의 폭력 피해가 서양에 못지않으리라 짐작된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고 중재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그에 앞서 다각적인 실증 연구들의 수행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Riggs와 O'Leary(1989)가 제안한 모델을 바탕으로 한 데이트 폭력 연구가 1990년대에 많이 이루어졌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그 모델의 하위요인을 심층적으로 다루거나 그런 요인과 데이트 폭력 간에 관계를 매개하거나 중재한 변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외에도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이 조명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도 Riggs와 O'Leary의 모델의 주요 변인, 즉 가정폭력의 경험이나 폭력에 대한 태도에만 기본적으로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단순하게 반복되는 경우가 있다는 데 아쉬움이 있다. 한국에서도 데이트 폭력 관련 연구에서 조금 더 포괄적인 주제가 다루어져야 한다.

앞서 고찰하였던 것처럼 가부장적 전통이 아직도 남아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데이트 폭력과 관련하여 가부장/비대칭 패러다임과 성-포괄적 모델의 타당성을 비교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신장애의 측면에서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특성 중에 집착이나 소유욕과 관련하여 성격장애나 정신병적 경향성을 인지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탐구할 필요도 있다. 데이트 폭력 가해나 피해는 갈등상황 혹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나 그 상황에서의 분노조절과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 관해서도 더 많은 탐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도 Riggs와 O'Leary (1989)의 모델에서의 특정 하위요인과 데이트 폭력 간에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들이 최근에 들어서 수행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논의한 것처럼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들이 그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나 공격적 피해자들의 특성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데이트 폭력의 중재나 예방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가 아직 없었다. 사회적으로 데이트 폭력이 개인과 사회의 건강을 얼마나 위협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데이트 폭력이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1996년부터 질병조절예방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 데이트 폭력 중재 및 예방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으며, 그것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Weisz & Black, 2001). 앞으로 한국에서도 데이트 폭력의 중재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강희경 (2007). 대학생의 가족 폭력에 대한 인식과 데이트 폭력. *청소년학연구*, 14, 21-41.
- 김동기 (2009). 가정폭력 경험이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폭력 허용도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6, 135-159.
- 김동기, 사공은희 (2007).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4, 99-124.
- 김보라, 정혜정 (2009). 대학생이 지각한 원가족 경험과 자아존중감 및 데이트 관계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 49-75.
- 김예정, 김득성 (1999a). 대학생들의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I). *대한가정학회지*, 37, 187-211.
- 김예정, 김득성 (1999b). 데이트 관계에서 폭력집단의 특성과 신체적 폭력 발생의 맥락.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 187-211.
- 김유정, 서경현 (2009). 폭력적 데이트 관계에서의 충동성과 분노 및 분노조절.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 383-402.
- 김정란, 김경신 (1999).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7, 73-90.
- 김정옥, 박경규 (2002).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과 학교 폭력과의 관계 연구: 일반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 93-115.
- 라이프코치데이트폭력상담소. 공개상담실. [http://date.elife coaching.net/pages\\_si/coun\\_ope\\_list.html](http://date.elife coaching.net/pages_si/coun_ope_list.html), 2009년 8월20일 인용
- 박종효, Essex, M. J. (2002). 공격적 피해자의 정신 건강 및 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002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발표집*, 167-172.
- 서경현 (2001). 이성을 사귀면서도 폭력을 행사하는가? *삼육대학교 학생생활 연구*, 5, 91-104.
- 서경현 (2002). 청소년들의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사회학습적 변인들과 분노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 1-15.
- 서경현 (2003). 음주 동기, 문제음주 및 음주 가족력과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 61-78.
- 서경현 (2004).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가정폭력 피해와 데이트 폭력간의 관계에 대한 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 147-162.
- 서경현 (2008). 공격적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의 분노 및 분노표현, 정신병적 경향성, 중독성과 대처 방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 21-39.
- 서경현, 김봉진, 정구철, 김신섭 (2001). 대학생들의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처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 1-15.

- 이트 폭력과 예측변인. 여성건강, 2, 75-98.
- 서경현, 안귀여루 (2007). 데이트 폭력의 공격적 피해 여성들의 특성과 연인관계에 대한 개입.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 77-95.
- 서경현, 이경순 (2002). 데이트 폭력 경험자들의 분노, 정신병적 경향성 및 중독성.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7, 353-369.
- 서경현, 이영자 (2001). 고등학생들의 데이트 폭력의 예측변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 91-106.
- 서경현, 최수동, 김익현 (2007).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가정폭력이 대학생의 연인관계와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1), 153-170.
- 손혜진, 전귀연 (2003). 미혼 남녀의 개인적, 관계적, 상황적 변인이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 43-63.
- 신혜섭 (2007). 데이트관계에서 신체적 폭력의 예측요인. 한국가족복지학(KJFSW), 19, 55-75.
- 신혜섭, 양혜원 (2005). 청소년 초기의 이성친구에 대한 신체적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청소년학연구, 12, 299-323.
- 안귀여루 (2002). 이성교제 폭력행동과 관련된 개인적 변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9, 55-75.
- 윤경자 (2007). 대학생들의 데이트 폭력의 만연성과 만성적 측면.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 65-92.
- 이영숙 (2005). 이성교제중 발생한 폭력. 대한가정학회지, 36, 49-61.
- 이정은, 현명호, 유제민 (2007). 폭력적 데이트관계 지속에 관한 투자모델의 수정: 이타적 망상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 983-995.
- 이지연, 오경자 (2007). 아동기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이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폭력에 대한 태도와 분노조절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 433-450.
- 이현수 (1997). 아이젠크 성격검사 요강. 서울: 학지사.
- 장희숙, 조현각 (2001). 대학생 이성교제폭력의 실태와 위험요인들. 한국가족복지학, 8, 179-204.
- 정혜정 (2003). 대학생의 가정폭력 경험이 데이트 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 73-91.
- 조미숙 (2003). 아내구타에 노출된 아들과 딸의 문제행동 비교연구. 아동관리연구, 7, 157-179.
- 중앙일보 (2001, 9, 14). 데이트 폭력이 늘고 있다. 50면.
- 중앙일보 (2009, 9, 30). 술 먹고 한 짓이라 감형?“ 흡흥피 부글부글. 48면.
- 허남순 (1993). 아내구타에 대한 대책 및 치료기법에 관한 연구. 비교사회복지, 2, 277-320.
- Abby, A., Ross, L. T., & McDuffie, D. (1995). Alcohol's role in sexual assault. R. R. Watson. (Eds.) *Drug and Alcohol Reviews, Vol. 5: Addictive Behaviors in Women*. Totowa: Humana Press.
- Abrahams, N., Jewkes, R., & Laubscher, R. (1999). *I Don't Believe in Democracy in the Home: Men's Relationships with and Abuse of Women*. Cape Town: MRC Technical Report.
- Aguilar, R., & Nightingale, N. (1994). The impact of specific battering experiences on self-esteem of abused women. *Journal of Family Violence, 9*, 35-45.
- Aizeman, M., & Kelley, G. (1988). The incidence of violence and acquaintance rape in dating relationships among college men and women.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29*, 305-311.
- Albert, D. J., Jonik, R. H., & Walsh, M. L. (1992). Hormone-dependent aggression in male and female rats: experiential, hormonal, and neural foundations. *Neuroscience and Biobehavioural Reviews, 16*, 177-192.
- Antonio, T., & Hokoda, A. (2009). Gender Variations in dating violence and positive conflict resolution among Mexican adolescents. *Violence and Victims, 24*, 533-545.
- Archer, J. (2000). Sex differences in aggression between heterosexual partners: a

-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26(5), 651-680.
- Arias, I., & Johnson, P. (1989). Evaluations of physical aggression among intimate dyad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4, 298-307.
-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New York: General Learning Press.
- Bernard, M., & Bernard, J. (1983). Violent intimacy: The family as a model for love relationship. *Family Relations*, 32, 283-286.
- Bookwala, J., Frieze, I. H., Smith, C., & Ryan, K. (1992).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A multivariate analysis. *Violence and Victims*, 7, 297-311.
- Burcky, W., Reuterman, N., & Kopsky, S. (1988).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The School Counselor*, 35, 353-358.
- Campbell, A., (1995) A Few Good Men: Evolutionary Psychology and Female Adolescent Aggression, *Ethology and Sociobiology*, 16, 99-123
- Campbell, J. C., & Kendall-Tackett, K. A. (2004). Intimate partner violence: Implications for women's physical and mental health. In K. Kendall-Tackett (Ed.), *Handbook of Women, Stress and Trauma* (p. 256). New York: Brunner/Routledge.
- Campbell, J., & Humphrey, J. (1993). *Children of Battered Women: Nursing Care of Survivors of Family Violence*. New York: Mosby-Year Book.
- Cate, R. M., Henton, L., Koval, J., Christopher, F. S., & Lloyd, S. (1982). Premarital abuse: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Family Issues*, 3, 79-90.
- Charkow, W. B., & Nelson, E. S. (2000). Relationship dependency, dating violence, and scripts of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3, 17-28.
- Coleman, D. H., & Straus, M. A. (1983). Alcohol abuse and family violence. In E. Gottheil, K. A. Druley, T. E. Skoloda, & H. M. Waxman (eds.), *Alcohol, Drug Abuse, and Aggression*.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 Comins, C. A. (1984). Courtship violence: A recent study and its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Paper delivered at the Second National Conference for Family Violence Researchers*, Durham, NH. 7-10.
- Cornell, D. G., Peterson, C. S., & Richards, H. (1999). Anger as a predictor of aggression among incarcerated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7, 108-115.
- Cunradi, C. B. (2009). Intimate partner violence among Hispanic men and women: The role of drinking, neighborhood disorder, and acculturation-related factors. *Violence and Victims*, 24, 83-97.
- DeMaris, A. (1987). The efficacy of a spouse abuse model in accounting for courtship violence. *Journal of Family Issues*, 8, 291-305.
- Dye, M. L., & Eckhardt, C. I. (2000). Anger, irrational beliefs, and dysfunctional attitudes in violent dating relationships. *Violence Victims*, 15, 337-350.
- Farnham, F. R., James, D. V., & Cantrell, P. (2000). Association between violence, psychosis, and relationship to victim in stalkers. *Lancet*, 355, 199.
- Felix, E. D., & McMahon, S. D. (2006). Gender and multiple forms of peer victimization: How do they influence adolescent psychosocial adjustment? *Violence and Victims*, 21, 707-724.
- Festinger, L. (1957). *A Theory of Cognitive*

- Dissonanc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Few, A. L., & Rosen, K. H. (2005). Victims of chronic dating violence: How women's vulnerabilities link to their decisions to stay. *Family Relations, 54*, 265-279.
- Fields, S., & McNamara, J. (2003). The prevention of child and adolescent violence. *A review.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8*, 61-91.
- Flynn, C. P. (1983). Relationship violence: A model for family professions. *Family Relations, 36*, 295-299.
- Follette, V., & Alexander, P. C. (1992). Dating violence: Current and historic correlates. *Behavioral Assessment, 14*, 39-52.
- Follingstad, D. R., Bradley, R. G., Laughlin, J. E., & Burke L. (1999). Risk factors and correlates of dating violence: the relevance of examining frequency and severity levels in a college sample. *Violence Victims, 14*, 365-380.
- Foo, L., & Margolin, G. (1995). A multivariate investigation of dat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0*, 291-305.
- Foshee V. A., Bauman, K. E., Greene, W. F., Koch G. G., Linder, G. F., & MacDougall J. E. (2000). The Safe Dates program: 1-year follow-up result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0(10)*, 1619-1622.
- Foshee, V. (1996).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 dating abuse prevalence, types, and injuries. *Health Education Research, 11*, 275-286.
- Foshee, V. A., Bauman, K. E., & Linder, G. F. (1999). Family violence and the perpetration of adolescent dating violence: Examining social learning and social control process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331-343.
- Foshee, V. A., Bauman, K. E., Arriaga, X. B., Helms, R. W., Koch, G. G., & Linder, G. F. (1998). An evaluation of Safe Dates, an adolescent dating prevention program.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8*, 45-49.
- Gavazzi, S. M., Julian, T. W., & McKenry, P. C. (1996). Utilization of the Brief Symptom inventory to discriminate between violent and nonviolent male relationship partners. *Psychological Reports, 79*, 1047-1056.
- Gelles, R. J. & Straus M. A. (1979). Determinants of violence in the family: Toward a theoretical integration. In W. R. Burr, R. Hill, F. I Nye, & I. L. Reiss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New York: Free Press, 549-581.
- Gelles, R. J. (1974). *The Violent Home*. Beverly Hills: Sage.
- Gleason, W. (1993). Mental disorders in battered women: An empirical study. *Violence and Victims, 8*, 53-68.
- Halpern, H. M. (1994). *Finally Getting It Right*. New York: NY: Bantam Books.
- Hamel, J. (2009).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Men's Health, 8*, 41-59.
- Hamilton, C. J., & Collins, J. J. (1981). The role of alcohol in wife beating and child abuse: A review of the literature. J. J. Collins (Eds.) *Drinking and Crime* (pp. 253-282). New York, NY: Guilford Press.
- Henton, J., Cate, R., Koval, J., Llyod, S., & Christopher, F. (1983). Romance and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Issues, 4*, 467-482.
- Herrman, J. W. (2009). There's fine line: Adolescent dating violence and prevention. *Pediatric Nursing, 35*, 164-170.
- Hird, M. J. (2000). An empirical study of adolescent



- dating aggression in the U. K. *Journal of Adolescence*, 23(1), 69-78.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offman, K. L., Demo, D. H., & Edwards, J. N. (1994). Physical wife abuse in a non-Western society: an integrated theoretical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6, 131-146.
- Jaycox, L., McCaffrey, D. F., Eiseman, B., Aronoff, J., Shelley, G. A., Collins, R., A., & Marshall, G. N. (2006). Impact of a school-based dating violence prevention program among Latino teens: Randomized controlled effectiveness trial.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9, 694-704.
- Johnson, M., & Leone, J. (2005). The differential effects of intimate terrorism and situational couple violence: Findings from the National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 *Journal of Family Issues*, 26(3), 322-349.
- Katz, J., Kuffel, S. W., & Brown, F. A. (2006). Leaving a sexually coercive dating partner: A prospective application of the investment model.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0, 267-275.
- Laner, M. R., & Thompson, J. (1982). Abuse and aggression in courting couples. *Deviant Behavior*, 3, 384-388.
- Lanes, K., & Gwartney-Gibbs, P. (1985). Violence in context of dating and sex. *Journal of Family Issues*, 6, 45-59.
- Levy, B. (1990). Abusive teen dating relationship: An emerging issue for the 1990s. *Response*, 13, 3-12.
- Lichte, E. L., & McCloskey L. A. (2004). The effects of childhood exposure to marital violence on adolescent gender-role beliefs and dating violenc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8, 344-357.
- Lloyd, S, Koval, J., & Cate, R. (1989). Conflict and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In M. A. Pirog-Good & J. E. Stets (eds.),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Emerging Social Issues*. New York: Praeger, 127-142.
- Lloyd, S. A., & Emery, B. C. (2000). The context and dynamics of intimate aggression against wome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7, 513-522.
- Lundeberg, K., Stith, S. M., Penn, C. E., & Ward, D. B. (2004). A comparison of nonviolent, psychologically violent, and physically violent male college date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9, 1191-1200.
- MacMurray, V. D. (1979). The effect and nature of alcohol abuse in case of child neglect. *Victimology*, 4, 29-45.
- Makepeace, James M. (1981). Courtship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Family Relations*, 30, 97-102.
- Malamuth, N. M. (1986). Predictors of naturalistic sexual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953-962.
- Marshall, L. L., & Rose, P. (1988). Family of origin and courtship violenc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6, 414-18.
- McDonald, M. (1994). *Gender, drink and drugs*. Oxford: Berg Publishers, 14.
- Miczek, K. A., BeBold, J. F., Haney, M., Tidey, J., Vivian, J., & Weerts, E. M. (1994). Alcohol, drugs of abuse, aggression and violence. A. J. Reiss, & J. A. Ross. (Eds.) *Understanding and Preventing Violence, Vol. 3: Social Influences* (pp. 377-570). Washington: National Academy Press.
- Miller, D. T., & Ross, M. (1975). Self-serving biases

- in the attribution of causality: Fact or fiction? *Psychological Bulletin*, 82, 213-225.
- Molidor, C. E., & Tolman, R. M. (1998). Gender and contextual factors in adolescent dating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 4, 119-134.
- Murphy, W. D., Coleman, E. M., & Haynes, M. R. (1986). Factors related to coercive sexual behavior in a nonclinical sample of males. *Violence and Victims*, 1, 255-278.
- Myers, W. C., & Monaco, L. (2000). Anger experience, styles of anger expression, sadistic personality disorder, and psychopathy in juvenile sexual homicide offenders. *Journal of Forensic Science*, 45, 698-701.
- Nicarthy, G. (1991). Addictive love and abuse: A course for teenage women in love. In B. Levy (Ed.), *Dating Violence: Young Women in Danger* (pp. 240-257). Seattle, WA: The Seal Press.
- Novaco, R. W. (2007). Anger dysregulation. In T. Cavell & K. Malcolm (Eds), *Anger, Aggression, and Interventions for Interpersonal Violence* (pp. 3-54). Mahwah, NJ: Erlb.
- O'Keefe, M. (1997).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 546-568.
- O'Keefe, M. (1998). Factors mediating the link between witnessing interparental violence and dat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3, 39-57.
- O'Keefe, M., Brockopp, K., & Chew, E. (1986). Teen dating violence. *Social Work*, 31, 456-468.
- O'Keefe, N. K., & Treister, L. (1998). Victims of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Are the predictors different for males and females? *Violence Against Women*, 4, 195-223.
- Pearson, J. (1991). Relationship dependent women: Their views on symptoms and recovery. *Virginia Counselors Journal*, 19, 3-13.
- Plass, M. S., & Gessner, J. C. (1983). Violence in courtship relations: A southern sample. *Free Inquiry in Creative Sociology*, 11, 198-202.
- Ramisetty-Mikler, S., Goebert, D., Nishimura, S., & Caetano, P. (2006). Dating violence victimization: Associated drinking and sexual risk behaviors of Asian, Native Hawaiian, and Caucasian high school students in Hawaii. *The Journal of School Health*, 76, 423-429.
- Ray, A. L., & Gold, S. R. (1996). Gender roles, aggression, and alcohol use in the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Sex Research* 33, 47-56.
- Reiss, A. J. (1951). Delinquency as the failure of personal and social control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6, 196-207.
- Riggs, D. S., & O'Leary, K. D. (1989). Intentional falsification in reports of interpartner aggress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4, 220-232.
- Riggs, D. S., & O'Leary, K. D. (1996). Aggression between heterosexual dating partners: An examination of a causal model of courtship aggress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1, 519-540.
- Riggs, D. S., O'Leary, K. D., & Breslin, F. C. (1990). Multiple predictors of physical aggression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5, 61-73.
- Roberts, T. A., Auinger, P., & Klein, J. D. (2006). Predictors of partner abuse i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adolescents involved in heterosexual dating relationships. *Violence*

- and Victims*, 21, 81-89.
- Rusbult, C. E., & Martz, J. (1995). Remaining in an abusive relationship: An investment model analysis of nonvoluntary commitm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 558-571.
- Sabina, C., & Straus, M. A. (2008). Polyvictimization by dating partners and mental health among U.S. College Students. *Violence and Victims*, 23, 667-682.
- Schwartz, D. (2000). Subtypes of victims and aggressors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8, 181-192.
- Shannon, L., Logan, T., Cole, J. & Medley, K. (2006). Help-seeking and coping strategies for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rural and urban women. *Violence and Victims*, 22, 167-181.
- Shepard, M., & Campbell, J. (1992). The abusive behavior inventory: A measure of psychological and physical abus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7, 291-305.
- Sigelman, C. K., Berry, C. J., & Wiles, A. (1984). Violence in college students'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5, 530-548.
- Silver, M. E., Field, T. M., Sanders, C. E., & Diego, M. (2000). Angry adolescents who worry about becoming violent. *Adolescence*, 35, 663-669.
- Smith, J. P., & Williams, J. G. (1992). From abusive household to dat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7, 153-165.
- Stein, A. L., Tran, G. Q., & Fisher, B. S. (2009). Intimate partner violence experience and expectations among college women in dating relationships: Implications for behavioral interventions. *Violence and Victims*, 24, 153-161.
- Stets, J. E. (1990). Verbal and physical aggression in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501-514.
- Stets, J. E., & Henderson, D. A. (1991). Contextual factors surrounding conflict resolution while dating: Results from a national study. *Family Relations*, 40, 29-36.
- Stets, J. E., & Pirog-Good, M. A. (1987).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0, 530-548.
-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75-88.
- Straus, M. A., & International Dating Violence Research Consortium. (2004). Prevalence of violence against dating partners by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worldwide. *Violence Against Women*, 10, 790-811.
- Straus, M. A., Hamby, S. L., Boney-MaCoy, S., & Sugarman, D.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7, 283-316.
- Sugarman, D. B., & Hotaling, G. T. (1989). Dating violence: Prevalence, context and risk markers. In M. A. Pirog-Good & J. E. Sets (Ed.),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pp. 3-33). New York: Praeger Publishers.
- Symons, P. Y., Groer, M. W., Kepler-Youngblood, P., & Slater, V. (1994). Prevalence and predictors of adolescent dating violence.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Nursing*, 7, 14-23.
- Theriot, M. T. (2008).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consideration for assessment and prevention of adolescent dating violence and stalking at

- school. *Children & Schools*, 30, 223-233.
- Tontodonato, P., & Crew, B. K. (1992). Dating violence, Social learning theory, and gender: A multi-variate analysis. *Violence & Victims*, 7, 3-14.
- Weisz, A. N., & Black, B. M. (2001). Evaluating a sexual assault and dating violence prevention program for urban youths. *Social Work Research*, 25, 89-101.
- Witte, T. H., Schroeder, D., & Lohr, J. (2006). Blame for intimate partner violence: An attributional analysi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5, 647-667.
- Wolfe, D. A., Scott, K., Reitzel-Jaffe, D., Wekerle, C., Grasley, C., & Straatman, A. (200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nflict in Adolescent Dating Relationships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13, 277-293.

원고접수일: 2009년 10월 5일

수정논문접수일: 2009년 12월 2일

게재결정일: 2009년 12월 10일

## A Review of Researches on Violence in the Heterosexual Dating Relationship

Kyung-Hyun Suh  
Sahmyook University

This review article illuminates the theme and the finding of researches related to dating violence, and suggests the information for intervention and future studies. After reviewing a bunch of studies, the author concludes dating violence in Korea was as severe as in western societies. Although females were more frequently reported inflicting dating violence than males in many Korean studies, the author emphasized this is not meant the male was typical victim of dating violence. Control Theory and Patriarchal/Asymmetry Paradigm were useful to explain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Riggs and O'Leary's model which is based in social learning theory, was more supported by many researchers. Based on this model,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violence and the attitude toward it were frequently explored in many studies, and roles of anger regulation, alcohol consumption, and psychoticism were also illuminated. The author suggests that self-injury, false attachment or emotional dependency, impulsivity, unpredictable mood swing, jealousy including violence were needed to investigate as characteristics of perpetrator of dating violence. The Korean study of dating violence should grow out of Riggs and O'Leary's model and be performed in multilateral way. It is needed to develop specific intervention strategies of dating violence and prevention program suitable for Korean culture, and pursue studies for evaluation of their effect.

*Keywords:* dating violence, courtship violence, intimate violence, domestic violence, dating relationship